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⑭ 보문(普門)의 구도 수행 2



▶한줄요약
보문은 부산과 만주 그리고 금강산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대중과 함께하는 출가자로서의 삶을 추구했다.

출세간과 세간 사이 오가며 깨달은 것들



부산을 떠난 보문은 만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민족의 영산 금강산을 참배하기로 했다. 사진은 금강산 내금강 묘길상암.

4. 부산 항만노동자 현실 속으로 들어가다

일제 경찰의 수배를 받고 대구를 떠난 보문(1906~1956)은 1년 뒤인 1935년 부산 항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화물을 배에 싣거나 배에서 화물을 내리는 일을 하는 항만노동자가 되었다. 보문은 왜 부산항만 노동자가 되었을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부산항만의 노동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1920년대부터 일본 자본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을 잠식하여 식민 지배를 뒷받침했다. 부산항은 일본 자본의 진출을 돕는 해상교통 및 물자 이동의 요충지였다. 특히 일제의 대륙 침략 전쟁 준비가 노골화되면서 전쟁물자 이동의 교두보 노릇도 하게 되었다. 항만의 하역량이 급증하니 항만노동자는 유례없이 늘어나 5천여 명에 이르렀다.

하역조합인 모군청(募軍廳)이 만들어졌다. 모군청은 정부로부터 노동자 감독권을 허가받아 노동력을 조달했다. 영신조(永信組)나 창신조(昌信組) 등의 단체도 결성됐다. 이들 단체는 하역노동자를 모집 공급하는 역할만 할 뿐 노동자의 이익이나 복지를 배려해주지 않았다. 항만노동은 20명 내외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작업조의 구성이 불가피했고 이를 인솔하는 조장(助長)과 십장(什長)이 생겨났다. 조장과 십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는 자기들 이익만을 챙겼으니, 그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경제적 침탈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일제는 마침내 모군청을 폐지하고 일본인 소유 항만하역작업회사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1920년에서 1930년에 이르기까지 중국 산동성 출신 노동자 '쿠리[苦力]'를 비롯하여 중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존재는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구실이 되어 조선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는 인플레가 진행되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더욱 낮아졌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일제 자본가는 전시체제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또 깎았다. 하역회사에 소속되지 못한 '비상용 하역노동자' -속칭 우께도리-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창신조나 영신조는 비용 공제 등을 핑계로 하여 비상용 하역노동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깎았다. 결국 비상용 하역노동자의 임금은 상용 노동자의 임금의 1/3 수준이 되었다.

1921년 9월에 일어난 부산부두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최초의 노동쟁의로서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31년 부산초량해륙노조원 800여 명은 임금의 3할을 깎는 조치를 철회하라는 쟁의와 투쟁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합법적 노동운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했다. 이제 부당한 임금 착취에 의해 궁지에 몰린 항만노동자들이 자신을 권익을 보호할 길을 찾기가 불가능해졌다.

보문이 부산항만으로 간 것은 이 같은 항만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보문은 가장 아프고 고단한 공간으로 자기 자리를 옮겨간 것이다. 항만하역작업회사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착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동헌(東軒, 1896~1983)이 증언했듯 대구에서 노동운동에 관여한 바 있는 보문이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연대를 생각하지 못했을 리 없지만, 이미 노동조합은 해산되어 제 노릇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게 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돕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보문은 일본인 감독자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해주도록 개인적으로 거듭 촉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일본인 감독자가 체불한 임금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한 보문은 일본도를 구해 품고서 퇴근하는 일본인 감독자의 뒤를 밟았다. 감독자가 부산 초량의 자기 집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두드렸다. 그 부인이 나왔다. 남편과 용건이 있다고 했다.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자 보문은 일본도를 꺼내 겨누고서 남편이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집의 이층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던 일본인 감독자는 어쩔 수 없이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가져와서 건네주었다. 보문은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다 나눠주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일이 부산 항만 노동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도움이 되기는커녕 무모하기만 한 짓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보문은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며 부산을 떠나갔다.

항만 노동자 돕기 위해 부산으로
민족해방 본격 투쟁 위해 만주행
만주길서 민족 영지 금강산 들러

5. 독립투쟁을 위해 만주로 향하다

보문의 다음 목적지는 만주였다. 일제가 조선 민중을 유린하는 식민지 현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이 먼저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문의 만주행은 민족해방 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였다.

만주는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 전후로 주목받게 된 항일독립전투의 근거지였다. 그곳은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일제 세력이 곧바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어서 독립전투를 수행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다.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일찍이 홍범도 등 함경도 의병세력이 만주로 이동했으니, 이들은 1920년대 항일 무력항쟁을 이끈 독립군의 기반이 되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도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 뒤로 이동휘, 유인석, 우병열, 이진룡 등이 만주로 망명해갔다. 이회영은 6형제와 가족 50여 명을 이끌고 갔다. 평해 황씨 문중에서 50여 명, 이상룡을 중심으로 한 고성 이씨와 의성 김씨 문중에서 각각 150여 명이 만주로 망명했다. 평해 경주 이씨, 구미의 김해 허씨, 상주 진주 강씨, 영양의 한양 조씨 일문 등 영남의 유림 집안들도 이주해갔다.

이처럼 만주는 민족해방투쟁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우선 떠올리는 공간이 되어있었다. 부산항만에서 국내적 항일투쟁의 한계를 절감한 보문이 더 위력적인 독립투쟁을 하기 위해 만주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고 당연했다.

또 이 무렵 다혁단이나 태극단 등 대구사범학교와 대구상업학교 항일투쟁 학생 단체들도 국내 활동이 여의치 못할 경우 만주의 독립군에 합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보천보전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만주 무장부대의 활동은 그들에게 큰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대구의 학생들은 만주로 가서 직접 전투를 펼칠 목적으로 체력 단련과 군사 훈련에 힘쓰고 있었던 것이다.

보문의 만주행은 이런 대구 학생들의 조직적 만주 진출 계획과 궤를 함께하는 개인적 진출인 셈이었다. 더욱이 불교적 구도의 길을 잃지 않고 있던 보문은, 수월(水月, 1855~1928)이 10여 년간 만주 회막동, 나자구 화엄사, 수분하 등지에 머물며 고국의 품을 떠나온 조선 민중들의 병을 고쳐주고 짚신을 삼아주며 제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었다.

6. 민족 영산 금강산을 참배하다

만주를 향하여 장도에 오른 보문은 민족의 영산 금강산을 마지막으로 참배하기로 했다. 고국을 떠나면서 금강산을 들른 것은 당시 젊은이의 공간적 감성을 고려할 때 어색하지 않다. 보문이 대구사범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사실이었다면-필자는 그간 보문의 대구사범 편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경북대 학사과 소장 자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공부했을 법한 대구사범 제4기 학생들도 보문이 금강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금강산을 다녀갔다. 수학여행이었다.

보문은 금강산 장안사 위 마하연에 이르렀다. 마하연에는 석우(石友, 1875~1958)가 조실로 있었다.

보문은 수좌들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발심했다. 만주로 가서 독립투쟁을 하려던 마음이 수행 득도하여 중생을 구원하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다. 물론 문경과 대구 시절 〈법화경〉 등 경전공부를 했고, 생사고해의 실정에 대해 고민해오던 것이 이때 더 뚜렷해진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마하연에서 행자 노릇을 시작했다.

마하연 선방은 장안사에서 식량을 가져다 먹고 있었다. 보문은 일주일에 한 번 장안사로 내려가서 방아를 찧어주고 식량을 얻어 짊어지고 마하연으로 돌아왔다. 정월 보름날 해제를 맞아 정진하던 스님들이 포살(지은 죄를 뉘우쳐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불교의 참회법)을 마치고 성불도(成佛圖, 극락과 지옥을 판에 그려두고 승부를 내기하는 놀이) 놀이를 하고 있었다. 스님들이 대중을 상대로 번갈아 가며 법문 시늉을 하는데, 대중을 웃겨야 법상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법상에 오른 스님들이 세속의 비루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을 웃기려고 애쓰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런 것이었다. '모두 부처님 말씀을 하며 부처님인 듯하더니, 대보름이라고 세속의 이야기를 저렇게도 태연히 하는구나. 근본 속은 잘 달라지지 않네!' 신심이 사그라들었다. 그런 곳에서 수행하여 중생구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보문은 만주로 다시 떠나기로 결심했다.

장안사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장안사로 내려가 하룻밤을 묵었다.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기차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짐을 꾸려 역으로 향했다. 언덕을 오르는데 웬 노인이 송장 누인 관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고 있었다. 보문이 관을 피해서 추월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겨우 지나쳐 가는데 노인이 작대기로 보문의 머리를 후려쳤다. "세상에 늙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늙은이가 송장 지게를 지고 가면 젊은 놈이 대신 지게를 받아지고 가야지!" 노인이 소리쳤다. 노인에게 얻어맞은 부분이 너무나 아파서 깨어났다. 꿈이었다. '세상에 늙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는 노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말은 화두가 되어 보문을 다시 발심케 했다.

〈연세대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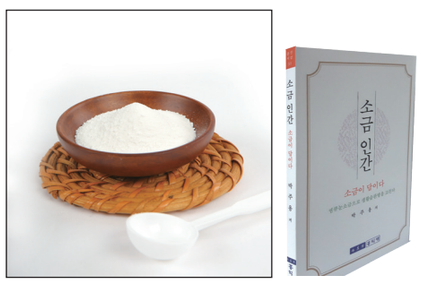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